

# 形態素 {-이}, {-게}의 對比에 대한 批判的 檢討

金 榮 信

## 目 次

- |                           |                       |
|---------------------------|-----------------------|
| I. 서 언                    | V. 의미자질의 설명력 검증       |
| II. 선행연구 및 그 비판           | VI. 문부사의 실현 및 중세어의 경우 |
| III. { -이 }, { -게 }의 실현범위 | VII. 결 어              |
| IV. 의미자질의 확립              |                       |

## I. 서 언

본고에서는 소위 부사화 형태소로 인식되어 오고 있는 { -이 }와 { -게 }에 대한 비교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들의 비교의 근거가 상당한 것인지를 살피고, 만일 이들의 비교가 가능하다면 그 가능범위에서의 비교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sup>1)</sup> 따라서 본고는 두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째, { -이 }와 { -게 }가 암묵적으로 비교되어 왔지만, 과연 그 두 형태소의 분포가 완벽히 일치되어서 대비가 정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두 형태소의 분포는 큰 차이를 보임이 드러날 것이며, 공통적으로 교차되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구명할 것이다. 둘째, 위의 결론에서 드러난 서로 교차되는 부분에서의 의미자질적 대비의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다. 이 작업은 고유의 분포를 통괄하는 전체 의미자질이 구명되고 나서, 특정의 교차분포라는 통사적 조건에 따른 제약을 가

1) 김명신(1987. 未刊)에서는 { -이 }와 { -게 }에 대한 연구업적들을 포괄적으로 살폈으나, 본고에서는 이들 두 형태소에 적극적 의미자질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여서, 교차되는 분포의 의미 자질이 도출되면 서로 두 형태소의 비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논의의 전개상 { -이 }와 { -게 }에 대한 先業들을 개관 및 비판하고, { -이 }와 { -게 }의 통사분포의 확정, 의미자질의 확립, 의미자질의 검증 및 비적격분에 대한 설명, 문부사 및 중세어의 { -이 }와 { -게 }에 대한 고찰의 순으로 쓰여진다.

## Ⅱ. 선행연구 및 그 비판

우선 이 두 형태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본격적으로 { -이 }와 { -게 }를 비교하며 이 형태소에 적극적 의미자질을 부여한 것은 임흥빈(1976) 이후이다. 임흥빈(1976)은 { -이 }나 { -게 } 자체에 독자적인 의미특성이 함유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소위 단순한 문법형태소로 간주하는 차원에 두 형태소에 적극적 의미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그는 { -게 } 부사어는 可視性, 外面性, 客觀性 등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고 보아 [ +對象性 ]으로 확립하였고, { -이 } 부사어는 非可視性, 內面性, 主觀性 등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고 보아 [ -對象性 ]으로 확립하였다.

심재기(1982 : 420 ~ 429)는 { -이 }형의 [ -對稱性 ]과 { -게 }형의 [ +對稱性 ]이 서로 중화된다는 입장에서 위의 의미자질을 비판하였다. 그는 임흥빈(1976)에서 세워진 의미자질 대신 [ 分離性 ], [ 豫定狀態化 ], [ 상태성 ], [ 정도성 ] 등으로 의미자질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 -게 }가 부사화소로 기능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속에 있는 대표적 부사화소 { -이 } 때문이다. { -게 }는 통사론적으로는 主文과 內包文의 행동주를 별도의 개체로 갈라놓는 [ 分離性 ]을 실현하며, 그것은 내포문을 의미상 主文 서술어를 위해 [ 豫定狀態化 ]하며, 예정상태화한 { -게 }는 主文의 서술어가 동작동사인가 상태동사인가에 따라 [ 狀態性 ] 및 [ 程度性 ]을 실현한다.

이재인(1983)에서는 { -이 }와 { -게 }의 의미특성을 [ 本有性 ]이라는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 -게 } 부사화만 허용하는 형용사 부류는 대상이 본래부터 지닌 자연적 혹은 비자연적 속성과 관련되므로 이를 [+본유성]으로 인식했다. 어근자질로서 [+본유성]은 대상과 동일시되며 대상과 等價性을 이루는 대상의 본유적인 존재속성으로, 대상에 대한 서술어적 성격을 지니는 자질로 파악했다. 그리고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대상의 내적·외적인 존재본적 양태로 인식했다. 이에 비해 { -이 }는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시간·공간·상태개념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들이 분명히 대상의 본유적인 속성으로부터 유리되는 개념이고, 대상과의 연결에 있어서도 소원하다고 보아 대립자질 [-본유성]으로 인식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아온 내용은 형태소 { -이 }와 { -게 }에 대한 의미자질의 확립이었다. 이들은 통사적인 조건들을 크게 주목하여 그것들을 의미자질 확립의 절차에 대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자질의 확립에만 주력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이 방법론적인 하자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상성], [+±본유성] 등의 의미자질만은 통사적인 적격성(well-formedness)에 대한 구분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들은 단지 직관적 의미자질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예를 보자.

- (1) a. 영희는 방을 예쁘게 꾸몄다.  
 \*b. 영희는 방을 예쁘(-이) 꾸몄다.

위의 문장에서 술어는 '예쁘다'와 '꾸미다'이다. 이 술어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명제를 구성한다고 볼 때, 우리는 이들에서 다음의 두 명제를 추출할 수 있다.

- (1') P : 방이 예쁘다.  
 Q : 영희는 방을 꾸몄다.

그러나 (1)에서 그 구성명제, P : "방이 예쁘다"는 것은 [대상성]이나

[본유성]과는 무관하다. 방이 예쁘다는 것은 하나의 주관적 상태일 뿐 반드시 객관화되어 [대상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방의 속성이 본유적으로 예쁘다고도 말할 수 없다. [예정상태화]한다는 속성과는 관계가 있으나 이 자질은 (1-b)에서 왜 {-이}가 실현되지 못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한다.

위의 예에 대한 검토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선행업적들이 한 문장의 적격성과 부적격성(ill-formedness)을 적절히 가려내어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면 왜 이들 자질이 적절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그 한 원인은 위의 선행업적들이 두 형태소 {-이}와 {-게}가 서로 유사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점에만 착안하여, 그 둘 사이의 의미자질의 변별과 확립에만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형태소가 실현되는 각각의 전체 분포에 초점을 두어서 그들의 통사적 특징을 살피고 나서 서로를 대비시켜 거기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Ⅲ. {-이}, {-게}의 실현범위

본고에서의 작업절차는 각 형태소의 분포를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게}가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게}는 다음의 네 가지 분포에서 실현된다. (김지홍, 1985)

- (2)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 (3) 그가 밥을 먹게 했다.
- (4) 그가 떠나게 되었다.
- (5) 얼굴이 예쁘게 화장을 했다.

(2)의 경우는 앞명제 “꽃이 아름답다”와 뒷명제 “꽃이 피었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동일주어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3)의 경우는 전통문법에서 사역의 형태소로 논의되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두 명제 사이에 {-게}라는 연산자의 결합을 이루는 점에서 (5)의 경우와 동일형태소로 파악된다. (2)와 차이가 있다면 이 경우는 앞명제와 뒷명제 사이에 주어가 서로 다르

다는 점이다. (4)의 경우는 ‘되다’라는 술어의 특성으로 [(그가 떠나다)와] [(그가 떠나다)]의 부대상황이 전제가 되고, 주어의 동일성여부에 초점을 두면 상이주어의 실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5)의 경우는 미래부동사(Ramstedt), 또는 將然副詞(최현배)로 다루어졌던 경우이다. 이 경우는 상이주어를 가진 {-게}를 나타낸다.

이들의 분포를 우리는 앞의 명제와 뒤의 명제가 서로 주어를 공유하느냐 않느냐의 여부로써 포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논의의 바탕으로 삼기로 한다. 결국 {-게}가 실현되는 경우는 통사적으로 앞뒤명제의 주어동일성 여부가 제 1차적인 특징을 갖게 된다.

다음은 {-이}의 분포를 보자.

(6) 손님이 많이 왔다.

형태소 {-이}가 실현된 경우를 앞의 {-게}의 경우와 같이 두 개의 명제복합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배타적으로 동일주어의 경우에만 나타난다.” 곧 “손님이 많다”와 “손님이 왔다”로 나누어 볼 때 앞의 명제와 뒤의 명제는 「손님」이라는 공통주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통사분포를 살핌으로써 {-이}와 {-게}가 왜 비교가 되는지를 확연히 언급할 수 있게 되었다. 곧 동일주어를 공유하는 통사적 조건에서 위의 {-이}와 {-게} 두 형태소가 대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게}가 상이주어를 가지고 실현될 때에는 {-이} 형태소와 서로 비교될 수가 없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이러한 통사적 비교근거에 대한 성찰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서 의미자질 확립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미자질의 부각에만 힘을 기울였을 뿐 각각의 논의에 대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통사적 분포에 대한 검토는, 암묵적으로 같이 대비하며 논의되어 온 두 형태소의 면모를 두 명제 사이의 동일주어실현이라는 확실한 통사적 근거 위에서 새롭게 논의할 지평을 열어준다.

2) 문부사로 {-이}가 실현되는 경우는 여기서 일단 논외로 한다. 문부사인 경우, 문부사는 전체문장을 논항으로 하는 연산자(operator) 구실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능(Possibility)과 필연(Necessity)의 연산자를 들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제Ⅵ장에서 이루어진다.

#### Ⅳ . 의미자질의 확립

통사적 분포에 따른 어미들의 의미자질의 확립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수립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물음은 다양한 통사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소의 의미자질을 어떻게 수립하고 확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과 궤를 같이 한다.

(7) 두 개의 명제 사이에서 동일한 음운형식으로 실현되는 명제결합형태소(연산자)는 그 의미도 동일하다.

위의 규칙은 물론 엄밀한 검증과정을 거쳐 성립시켜야 하겠지만, 본고의 논의에서 벗어나므로 잠정적으로 타당하게 받아들여기로 하겠다. 이 규칙에 따라 { -게 }의 상이한 분포는 종전의 방식대로 { 계<sub>1</sub> } 부사형어미, { 계<sub>2</sub> } 장연부사형어미, { 계<sub>3</sub> } 사역형어미 등으로 별개의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형태소 { -게 }로 파악하여 같은 의미자질을 배당한다. 이 기본의미자질에다 특정 통사에 분포하는 추가적 제약을 설정하여 도출의미자질을 확정하는 것이다.<sup>3)</sup>

그러면 동일주어와 상이주어의 두 분포로 나타나는 { -게 } 형태소의 기본의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우선 이 기본의미를 [X]라고 하자. 우리

3) 전통문법에서는 다소 분포만 달라지더라도 동일음운형식들을 별개의 형태소로 정하여 {  $X_1, X_2, X_3, \dots, X_n$  } 등으로 확정지었다. 그러한 방법은 형태소의 포괄적 기술에도 많은 장애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법의 복잡성을 야기시키며, 합리적인 언어관에도 위배된다. 언어가 인간의 고유한 내재물이고 문법이 이 정체를 드러내는 구체적 방편임을 전제할 때, 암기를 통한 문법습득이란 지양되어야 한다. {  $X_1, X_2, X_3, \dots, X_n$  } 등으로 별개의 형태소 표지를 부여함은 습득이 선천적이 아니라 암기와 반복훈련에 의한 것임을 함의한다. 우리가 합리론적 입장에서 언어에 대한 내재적인 보편원리를 확정시켜 주어야 함을 인정한다면, 동일부류의 분포에 따른 동일음운형태의 형태소는 하나의 형태소로 지정하여 주는 편이 낫다고 믿는다. 이에 관한 논의는 차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본고의 범위는 물론 능력을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단순히 본고가 취하는 태도만을 밝히고자 한다.

는 이 [X]에다 통사적인 동일주어조건을 첨가시켜 [X']의 도출의미를 나오게 만들고, 상이주어조건을 첨가시켜 [X'']의 도출의미를 나오게 할 것이다. 의미자질 [X]의 확립에는 논자의 직관이 관여하는 부분으로서, 이 결과는 지금까지의 [대상성], [예정상태화], [분리성], [본유성] 등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김지홍(1985)에서는 [X']의 경우와 [X'']의 경우를 [뒷명제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뒷명제에 대한 목표점]으로 파악하였다. 이 때 뒷명제는 [사실성(factual)]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X'], [X'']의 도출의미를 확정지으면서도 [X]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X]를 [非事實性(non-factual)과 事實性(factual)의 연관]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8) P { -계 } Q : 단 명제 P, Q는 동일주어

(9) P { -계 } Q : 단 명제 P, Q는 상이주어

(8')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P : 꽃이 아름답다.

Q : 꽃이 피었다.

(9') 영희에게 밥을 먹게 했다.

P : 영희가 밥을 먹다.

Q : (그가) 밥을 먹게 하다.

(9')의 경우는 Q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또는 수행문의 경우 언행력(illo-cutionary force)을 지니므로 사실성으로의 해석이 보장되어서) [事實性]이 검증될 수 있다. 그런데 (8')은 P가 Q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관계를 나타낸다. (9')는 P가 Q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최종목표점을 지시한다. 여기서 (8')의 P는 [주관적 평가]의 값을 갖게 되며, (9')의 P는 [목표]라는 값을 갖게 된다. 이 때의 두 P는 [비사실성]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계}가 실현된 문장은 반드시 앞명제가 [비사실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뒷명제는 [사실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앞뒤명제가 동일주어일 경우 [비사실성]은 [주관적인 평가]의 값을 갖게 되고, 앞뒤명제가 상이주어일 경우 [비사실성]은 [목표점]이 된다.

이 상에서 우리는 {-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계}가 실현되는 구문

은 두 가지 통사적 분포를 갖는다. 하나는 동일주어일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상이주어의 경우이다. { -계 }의 기본의미 [X]는 [비사실성의 명제와 사실성의 명제의 연관]<sup>4)</sup>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의미 [X]에 동일주어라는 통사조건이 부가되면 [사실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도출의미를 갖고, 상이주어라는 통사조건이 부가되면 [사실성에 대한 목표점]의 도출의미내용을 갖는다.

다음은 { -이 }를 살펴보자. { -이 }라는 형태소가 [정도]를 나타냄은 이미 전통문법에서부터 정도부사라는 표지로써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정도]라는 의미가 무엇과 관련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본고에서의 { -계 }와 관련시킬 때, [정도]의 의미가 적용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사실성]을 띤 명제라야 함을 지적한다. [정도]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사물의 상태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 -이 }, { -계 }의 두 형태소가 대비될 수 있는 지반은 { -계 }의 동일주어분포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동일주어조건의 { -계 }는 [사실성]을 지닌 뒷명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관계를 갖는다. 이 주관적 평가는 [비사실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 -이 }는 배타적으로 동일주어의 분포만을 갖는다. 뒷명제는 [사실성]을 지니고 이 사실성에 대하여 앞명제가 그 [정도]를 지시해 주는 관계가 { -이 }의 기본내용이다. { -이 }가 실현된 앞명제는 정도성을 표시하므로 항상 [사실성]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게 된다. 이 점이 { -계 }와 { -이 }가 서로 대척점에서 있는 내용이 된다.(김지홍 1985)

4) 일단 이 의미자질이 너무 광범하고 포괄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다. 하지만 필자로서는 아직 두 분포의 의미를 통합할 수 있는 meta개념을 찾지 못하여 현단계로서는 잠정적으로 이런 의미자질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각각의 도출의미인 [X'], [X'']이다. 이 도출의미의 바로 전단계의 통합의미인 [X]에 대한 확정성은 다만 { -계 }형태소 자체로써만 구명될 것이 아니다. [X]의 확정에는 P, Q 두 명제를 관계 맺어 주는 다른 형태소들, 가령 { -아 }, { -지 }, { -고 } 등의 기본의미자질과 서로 체계적 연관을 가질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적인 연산자 기술이 잘 이루어지면 { -계 }의 [X]에 대해서도 더 바람직하게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게}가 소위 문부사의 지위를 갖고 쓰일 경우가 있다. 이는 VI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문부사의 경우는 뒷명제의 내용이 문부사로 실현된 앞명제의 논항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통사적 구성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런데 문부사의 경우는 {-게}의 의미해석이 항상 {-이}의 의미해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장에서 논의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 V. 의미자질의 설명력 검증

이제 우리의 작업은 위의 결론들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 검증할 단계에 와 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검토하기로 한다.

- (10) a. 시계가 5분 빠르게 간다.  
 b. 시계가 5분 빨리 간다. (임흥빈, 1976)

위의 문장을 앞뒤 두 명제로 나누어 생각하자. 앞명제는 “시계가 5분이 빠르다”이고, 뒷명제는 “시계가 간다”가 된다. 연산자 {-게}에 의한 두 명제의 결합은, 사실성을 지닌 뒷명제에 대해 앞명제가 이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10-a)는

(10-a') 시계가 가되, 늘 5분만이 앞선 상태로 있다.

의 의미를 유도받게 되어서, 세 시간이 지나든 다섯 시간이 지나든 항상 정 시각에서 5분만이 앞선 상태가 되는 것이다. {-게}의 결합으로 앞명제의 “5분이 빠르다”라는 내용은 비사실성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5분이 빠르다”라는 내용은 누적적으로 5분-10분-15분……으로 빨라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의한 두 명제의 결합은 [사실성]에 대한 [정도성]을 표시하므로, (10-b)는

(10-b') 시계가 가되, 매시간마다 5분씩 누적적으로 빠르다.

라는 해석을 유도받게 된다. [정도성]을 나타내는 앞의 명제가 [사실성]의 영역 속에 있으므로, 항상 사실적인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적으로 증가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10)의 경우는 { -게 }와 { -이 }가 모두 적격성을 띠고 실현되는 경우였다.

다음은 { -이 }만이 적격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

- (11) a. 그 곳에 쌀이 대단히 많았다.  
\*b. 그 곳에 쌀이 대단하게 많았다.

(11)의 문장을 앞뒤 두 명제로 나누었을 때는 “그곳에 쌀이 대단하다”와 “쌀이 많았다”의 두 명제가 된다. 그런데 쌀이 많다는 사실은 量을 나타낸다. 곧 객관적으로 五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며, 따라서 “대단하다”는 [사실성]의 영역에 소속된다. 따라서 그 量은 [주관적 평가]로서보다 [정도]의 개념으로서의 설명만이 가능하다. (11-b)의 부적격성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11)과는 달리 다음은 { -게 }만이 가능한 경우이다.

- (12) a. 꽃이 예쁘게 피었다.  
\*b. 꽃이 예쁘(-이) 피었다.

“꽃이 예쁘다”와 “꽃이 피다”로 나눌 수 있는 위의 문장에서 앞명제 “꽃이 예쁘다”는 것은 꽃이 핀 사실에 대해 예쁘다고 화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핀 사실에 대해 꽃이 핀 정도가 예쁘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쁘다”는 주관적인 평가동사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Ⅵ장에서 논의될 문부사의 항목과도 다소 접칠 수 있는 예문을 검토하기로 한다. 물론 여기서 { -이 }, { -게 }가 실현된 명제들은 문부사의 지위로서 간주하기보다는 대등한 두 명제의 연관의 지위로서 논의의 일관성에 따라 인식하기로 한다.

- (13) a. 나는 그를 굳게 믿는다.  
b. 나는 그를 굳이 믿는다.

위의 문장들은 각각 “나는 그를 믿는다”와 “나는 굳다”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나는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성]의 의미를 지닌다.<sup>5)</sup> 그리고 앞 명제 “나는 굳다”는 적절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질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나의 믿음이 굳다”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 적격성을 부여하겠다. (13-b)의 문장의 성립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13-a)와의 대비상 성립가능한 문장으로 이용한다.<sup>6)</sup>

(13-a)는 { -계 }의 연관에 의해 [주관적인 평가]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자기 믿음에 대한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3-a') 나는 그를 믿되, 그 믿음이 굳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그러나 (13-b)는 { -이 }의 연관에 의해 [정도성]의 연관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 믿음의 정도가 굳다, 굳지 않음을 관별할 수 있는 사실적 증거나 정황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이 정황은 (13-b)의 전제문을 검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13-b') 그를 믿고 싶지 않았다.

(13-b')는 (13-b)의 전제문이다. 곧 “굳이”의 개재로 인하여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태였으나 믿는 상태로 바뀔을 지시한다. 이 변환의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믿는 상태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13-a)의 믿음의 상

5) 여기서 “믿는다”라는 동사는 주관적인 동사이므로 [사실성]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소위 화행이론(Speech Act)에서의 적절성조건(Felicity Condition)을 적용하기로 한다. 규칙에 맞는 언어형식을 청자·화자가 言命(Locution)대로 적절하게 수행(Perlocution)을 이루어내어 眞과 僞의 값을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진리치를 갖지 못하던 명령·의문문뿐만 아니라, 서법의 형태까지도 진리치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6) 이와같이 적격성여부가 문제시되는 것은 “굳이”라는 요소가 통상 문부사에서 자주 쓰여지기 때문이다. 이를 일상적 용법이라고 한다면 “나는 굳다”로도 출현 명제는 어원을 고려하는 다소 예외적 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태는 객관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13-b)의 믿음의 상태는 모종의 객관적 정황이 믿음의 상태를 변환시키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사실성과 관련을 맺게 된다.

## Ⅵ. 문부사의 실현 및 중세어의 경우

우리는 앞에서 두 명제 사이의 연산자 구실을 하고 있는 { -게 }와 { -이 }를 살폈다. 여기서는 { -게 }와 { -이 }가 문부사로 실현되는 경우를 살피기로 한다.

- (14) a. 똑똑히 그가 말한다.  
b. 똑똑하게 그가 말한다.

위의 문장은 앞뒤명제 “그가 말한다”와 “그가 말함이 똑똑하다”로 나뉜다. 여기에서 (14-a)의 해석은

(14-a') 그가 말을 하되, 발음이 똑똑하다.

의 뜻만을 지닌다. 이에 비해 (14-b)의 해석은

- (14-b') 그가 말을 하되, 발음이 똑똑하다.  
(14-b'') 그가 말을 하되, 영리하게 말한다.

의 두 가지로 해석된다. 여기서 { -게 }의 고유내용인 주관적 평가를 고려한 해석은 (14-b'')일 뿐이다. 그런데 (14-b')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이와 똑같은 경우가 문부사의 구성일 경우에는 더 다히 발견된다.

- (15) a. 그들이 이익을 부당히 독점하였다.  
b. 그들이 이익을 부당하게 독점하였다. (임흥빈, 1976)

{ -이 }로 실현된 (15-a)의 해석은 “이익을 독점하되 그 수단이나 방법이 부당하다”는 뜻 한 가지로 해석되나, (15-b)의 해석은 “이익을 독

점하되, 방법이나 수단에는 관계없이 그 목적이 부당하다”는 뜻과 “이익을 독점하되, 그 방법이나 수단이 부당하다”는 뜻 두 가지가 된다.

이러한 현상만을 놓고 볼 때, {-계}의 의미영역은 {-이}의 의미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까지의 논의는 서로 대척적인 의미자질을 내세워 {-계}와 {-이}를 다루어왔다. 이러한 예문은 우리의 立論의 방법을 자칫 무산시켜버릴 수도 있는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를 예외적으로 보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만일 이들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앞에서 대립적으로 논의되어 온 수많은 언어현실들을 설명할 방도가 없게 된다. 둘째, 이들이 언어변동을 주도해 나가는 선두적 주자들로 처리할 수 있다. 이들이 갖는 명제결함방식은 뒷명제가 앞명제의 논항이 되는 경우로서, 달리 말하면 [사실성]에 대한 [정도성] 표시의 방법과 동일한 기제가 된다.<sup>7)</sup> 이러한 명제결함운용기제의 동일성이 {-계}로 하여금 [정도성]의 의미자질에도 확산시켜가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계}와 {-이}의 변동은 중세어와의 대비로써 확인될 수 있다. (이승욱, 1984) {-이}는 중세국어에서도 현대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우, -아/어, -옥, -사리, -애...’들에 비해 그 파생능력이 가장 생산적이었다. 그러나 중세어의 경우 {-이} 부사의 語基의 주축이 형용사라는 사실은 확고하지만, 현대어의 일반 규정과는 달리 일부동사에도 적용되었다. 이때 일부동사가 특수하게 {-이} 부사 조성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규칙이 다음 시대에 그대로 이어져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어휘가 그 목록에

7) 이와 같은 방식은 다음의 양상연산자, ‘◇P, □P’에서처럼 처리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연산자들은 논항 P가 <D, T>전체의 내포세계에서, <di, ti>에서 확인되느냐, 모든 가능세계에서 확인되느냐 하는 관계를 지시해주고 있다.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논항 P에 대한 명세화과정은 문부사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명세화과정에 {-이} 형태소는 [정도성]에 초점지워지는 것이다. {-계}의 문부사지위 획득은 {-계}가 {-이}처럼 논항명제인 P를 명세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계}가 이런 명세화과정의 문부사지위를 획득하는 데에는 “-계 되다” 구성이 한 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겠다.

서 차츰 사라졌다. 이들 목록들을 현대국어와 관련시킬 때, 다음의 두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중세국어의 형태나 현대국어의 형태는 변함이 없고, 단지 음운론적 변화에 따른 차이만을 나타내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이다. (이승욱 1984, 남광우 1971)

머리〔말-〕→머리, 업시〔없-〕→없이, 외럭이〔외롭-〕→외로이, 꺾비〔꺾-〕→가뻐……

둘째는 음운론적 변화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그 어휘자체가 다른 어휘로 대체되고 있는 경우로, 현대국어에서는 { -이 } 형태는 찾아볼 수 없고, 중세국어에서의 { -이 } 형이 { -게 } 에 의한 부사형으로 대체되고 있는 다음의 예들과 같은 경우이다. (이승욱 1984, 남광우 1971)

키〔크-〕→크게, 오히〔옹-〕→옹게, 불기〔불-〕→불게, 도히〔통-〕→통게, 느지〔늦-〕→늦게, 니르리〔니를-〕→이르게〔이르-〕, 그우리〔그울-〕→구르게〔구르-〕……

이상의 둘째 경우는 중세어에서 { -이 } 로 실현된 것들이 현대어의 경우 { -게 } 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중세어의 경우를 개관한 까닭은 본장에서 다루는 문부사의 { -게 } 가 변동하고 있는 형태소일 가능성을 암시하고자 함에서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 -게 } 가 문부사의 지위로 실현되면서 { -이 } 의 영역까지도 포괄하고 있음을 보였다. { -게 } 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세자료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 { -이 } 의 실현영역으로 그 실현범위를 확대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변동이 전체 문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의 결과에 따라 통찰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문부사로서의 { -이 }, { -게 } 가 앞에서 다루어온 대등한 두 명제의 연관과는 달리, 뒷명제가 앞명제에 대한 논항주어로서 삼입되고 있는 경우임을 지적하고, 그들의 의미해석도 서로 내포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본장에서 다룬 영역은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런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고는 그치려고 한다.

## VII. 결 어

이상에서 본고의 작업은 {-계}와 {-이}의 대비에 대해 연구업적들을 검토하였고, 본고 나름대로의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종전에 암묵적으로 대비되어 온 두 형태소는 {-계}가 동일주어를 가질 때에라야 가능한 것이었고, {-이}는 항상 두 명제의 주어가 같았다. 그러나 {-계}는 두 명제가 상이주어를 가질 때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계}가 {-이}에 대비되는 것이 아니었다.

{-계}의 의미는 [비사실성과 사실성의 연관]이라는 기본의미에다 동일주어조건일 때는 [주관적 평가]라는 의미자질을 가졌고, 이에 대비되는 {-이}는 [정도성]이라는 의미자질을 가졌다.

이와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분포이나, 이와는 달리 위의 두 형태소가 내포관계를 띠게 되는 문부사로서 실현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에는 {-계}의 의미해석이 항상 {-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계}의 의미해석이 [주관적 평가] 이외의 [정도성]이 포함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현상을 {-계}형태소의 변동으로 보았다. 이를 변동으로 파악하는 근거는 중세어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계}가 중세국어 어휘로부터 계속 그 실현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논리이다.

본고는 두 가지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하나는 무작정 대비되어 오고 있는 {-이}와 {-계}형태소가 어떤 경우에 대비가 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 대비가 불가능한지를 명시적으로 구명하는 것이었다. 본고는 앞뒤 두 명제간의 주어가 동일주어일 때에 비로소 대비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비가 가능한 분포에서 그 대비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사실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사실성의 정도성]의 차이, 곧 앞명제가 [사실성]의 영역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써 나뉘어지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계}와 {-이}를 들

러싼 문제가 만만치 않음을 보였다. 이는 { -게 }의 의미해석이 { -이 }의 의미해석까지를 포괄하는 문부사의 경우에서였다. 이를 본고에서는 근본적인 경우로서보다는 변동을 입고 있는 예외적 경우로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중세어 연구의 업적을 참고하면서 { -게 } 형태소 실현영역의 확장에 주목하였던 데에서 가능하였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일견 근본적인立論까지를 무위로 만들어버릴 수 있음을 본고는 부정하지 않는다. 본고가 이를 예외적으로 파악하는 만큼 본고의 논의는 한계를 지닌다.

### 參 考 文 獻

- 김영신(1987. 未刊).〈우리말 부사화소 ‘이, 게’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영희(1976).〈형용사의 부사화구문〉, 「어학연구」 12-2. 서울대 어학연구소.
- 김지홍(1985).〈{게}의 통합적 의미와 그 통사에 대하여〉, 「서강어문」 4,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 심재기(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이승욱(1984).〈중세어의 ‘이’ 부사화와 일부의 페어현상〉, 「東洋學」 14.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이재인(1983).〈‘-이’ 부사의 형성과 그 특성〉, 「서강어문」 3,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 임흥빈(1976).〈부사화와 대상성〉, 「국어학」 4.
- 최현배(1955). 「우리말본」, 정음사.